

“노하우 좀...” 신안 버스공영제 ‘선거특수’

2007년 도입 성공 정착, 고령화 시대 ‘교통 대안’ 부상 지방선거 잇단 공약 채택... 전국서 성공요인 문의 쇄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준)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신안군이 뜨고 있다.

신안군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의 출마자들이 앞다퉀 신안의 성공 사례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군정에 버스(준)공영제의 운영 사례와 성공 요인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는 등 때이닝 특수(?)를 맞고 있다.

14일 신안군은 “국회 초청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우수 사례로 발표한 데 이어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버스(준)공영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

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들은 버스를 무료로 타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군 전체 38대 차량에 44명(예비 6명 포함)의 기사가 40개 노선을 1일 10회 운행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대상자, 6세 미만 아동은 무료이고, 일반인은 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안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벽지도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14개 읍·면 중 11개면이 도서 지역으로 인구 4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000여명

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없는 낙도의 경우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노약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선착장까지 2~3km 정도 걸어 나와야 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 2006년 교통개선추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2007년 입자도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버스공영제 연구용역 완료 후 운영조례를 공포했다. 이어 2008년 하의, 도초, 지도, 흑산, 자은, 압태, 팔금, 증도, 장산, 비금, 신의, 2009년에는 안좌, 2013년 5월 압해도를 끝으로 14개 읍·면에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했다.

또 기존 민간 버스업체들의 영업보상, 실적보상, 차량인수비 등을 산정한 뒤 86억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업체로부터 군내

버스 38대를 사들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인원 68만5000명이 이 버스를 이용했고, 이중 77.4%인 53만명이 무상으로 탑승해 무상버스에 거의 접근한 상황이다.

이용객도 급증하고 있다. 공영제 전인 2006년 한 해 버스 이용객은 20만명에 불과했지만 무상 운행 후 이용객은 3배가 넘는 68만5000명에 달했다. 14개 읍·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주변 상가가 활성화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버스 구입 과정에 기사들의 고용 승계로 불만을 줄였고, 무상 버스 운행에 따라 승객이 줄어든 택시업계를 위해 감차(110대 중 13대)와 택시쿠폰제(연간 예산 2억 2000만원)를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을 손본 점도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국회에서 버스(준)공영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노을 감상하며 책 읽는 재미 쏠쏠

신안 저녁노을 미술관내 북카페 문화쉼터 인기

신안군이 조성한 ‘천사섬 분재공원’내 문화예술의 공간인 ‘저녁노을 미술관’ 북카페(사진)가 지역민들의 문화쉼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신안군은 “저녁노을 미술관 개관과 더불어 문을 연 북카페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북카페는 125㎡ 규모로 미술관련 서적, 일반서적 등 5000여권의 책이 비치돼 취향에 따라 마음껏 책을 고를 수 있다. 또 아름다운 바다 정원과 붉게 물드는 저녁노을을 감상하며 커피·차 등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도 있다.

북카페의 책은 (주)월간 미술세계 백용현 대표가 30여년 동안 수집한 미술관련 서적과 일반도서 1만5000여권을 신안군에 기증한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소중한 기증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술관련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삶의 지혜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책 공유의 뜻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술관 내의 북카페가 다양한 문화 공간의 집합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불거리 제공과 서비스 질을 높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갯벌 가로지른 노들길 개보수

신안군 압해도 광림마을 주민들이 최근 마을앞 대섬(죽도)과 김 양식어장을 잇는 노들길을 보수하기 위해 마대를 옮기고 있다. 노두길은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 위에 돌을 쌓아 건너 다니는 길이다. <신안군 제공>

영광 대마산단에 전기운송수단 연구단지 조성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전기운송수단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영광군은 14일 “국내 최초로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이 대마 전기자동차 산단에 정부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330억 원을 투입해 실증환경 평가센터를 비롯해 인증센터, 인력양성 센터, 산·학·

연 공동 연구실(Colla Lab), 녹색인증, 기술 확산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운송수단(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전기 휠체어, 전기 농기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와 개발, 시험·인증, 평가센터가 구축되는 셈이다.

지난 1월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400억 원 규모의 ‘디자인 융합 마이크로(Micro)-모빌리티 신(新)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이

어,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이 정부사업 확정돼 영광군은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비 총 73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국내에 자동차 관련 평가기관이 구축된 곳은 ▲경기 화성, 교통안전연구원, 대구 달서,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진흥재단(이상 승용차) ▲전북 군산, 전북 자동차 기술원(이상 상용차) ▲경북 영천, 경북 하

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상 전기자동차) 등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자동차 산업분야에는 인증·평가기관이 없는 실정이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마산단에 전기자동차 관련 인증·평가 기관이 구축되면서,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영광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정부사업 확정...3년간 330억원 투입 연구개발·시험·인증·평가센터 구축

무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지킴이 역할 특출

지난 1일 부터 운영에 들어간 무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예방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군 CCTV 통합 관제센터는 관내에서 기관별, 목적별로 분산돼 운영중인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관내 학교 CCTV 등 총 404대를 통합해 경찰관 2명과 관제인력 20명 등 총 22명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교통사고, 폭력사건, 거동이상자 및 노약자보호 등 총 18건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즉시 안전조치했다. 또 절도사건 등 범죄사건해결을 위해 15건의 영상을 제공하기도 했다.

군은 올해 내에 방범 CCTV를 우범지역 12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각종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위험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4월 25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환 이정용 최규한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석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현준